2022년 우리 교회 표어
오직 성령으로

순복음가족신문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2022년 4월 10일(주일) 주간 제2156호 THE FULL GOSPEL FAMILY NEWSPAPER 1984년 6월 15일 창간 (02)6181-9191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조찬기도회 개최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조찬기도회'가 개최된 가운데 이영훈 목사, 오세훈 서울시장,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김용두 기자

이영훈 목사, 민간외교사절 역할로 한·이 우호 관계 돈독
각계 인사 참석해 세계평화 위한 기도 시간 가져

'한국-이스라엘 수교 60주년 조찬기도회'가 7일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우리 교회와 주한 이스라엘대사관, 한·이스라엘친선협회가 개최한 이번 조찬기도회는 올해가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인 만큼 한국과 이스라엘의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결속을 더욱 새롭게 다지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양국의 정계·교계·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초청인 대표로 축하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목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많다"며 "74년 전인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일과 그 3개월 뒤에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한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독립 국가를 세운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다"고 회고했다. 이영훈 목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을 그들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이 신앙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오늘날까지 복 주시고 보호해주셨다"며 "이 신앙은 유대인들의 진정한 능력이요 힘이다. 이 신앙은 모든 기독교인의 영적 유산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 목사는 특히 "성경 시편 122편 6절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한다"면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또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영상 축하인사를 통해 "한국과 이스라엘은 믿음과 용기로 큰 위협을 극복해서 번영과 민주주의를 이룩해 낸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의 우정과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스라엘 국민들은 과학과 기술, 사이버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의 유대가 강화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는 더 나은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연대를 강조하며 "함께 협력해 새로운 청정에너지를 만들고 가까운 시일 안에 예루살렘 및 갈릴리 해변에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부를 대표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축하 인사를 보내왔다. 권일두 목사(국제사역CGI국장)가 대독한 축사에서 황희 장관은 "문화, 예술, 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모두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주주의 이념과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양국의 발전은 세계평화를 향한 길을 더욱 넓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목사님이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서 민간 외교사절 역할을 잘 수행해주고 있다"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숨은 노력으로 개최된 이 기도회를 통해 양국이 돈독한 우정을 나눔으로써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이영훈 목사는 2018년 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성도들과 이스라엘을 방문해 '한국 이스라엘 친선 기도회'를 갖고 양국의 협력 관계를 신앙적 차원까지 확산시켰다. 이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민간외교관 역할을 했고 2019년에는 당시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던 르우벤 리블린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이스라엘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인도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아르헨티나 포함 모두 16개국의 주한 대사들이 참석했다.

또한 류영모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이홍정 NCCK 총무,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 황우여 한·이스라엘친선협회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주영 기자

일본 삿포로신학교 개교식

일본 선교의 꿈 이룰 사역자 양성 과정

순복음동경교회 삿포로신학교 개교식 및 입학예배가 5일 일본 삿포로와 우리 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화상회의플랫폼 줌(ZOOM)을 통해 동시 진행됐다.

이날 삿포로신학교 이사장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개교 선언을 통해 "삿포로신학교 개교는 조용기 목사님의 꿈이었다. 동시에 이영훈 목사님이 계획하는 세계 선교의 한 전략이고 일본 선교의 동력이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개교를 선언한다"고 선포했다. 참석한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과 순복음신학교 관계자들,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역자들은 아멘으로 화답했다.

삿포로신학교장 이영훈 목사는 '증인이 되리라'(행 1:8)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삿포로신학교를 개교하면서 일본 일천만구령의 꿈을 마음에 품고 '성령, 권능, 증인' 세 단어를 깊이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된다"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일천만 구령을 위해서 일본 전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다. 오늘 신학교에 입학한 신학생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한다. 시가끼 목사님을 필두로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일천만구령의 역사를 이룰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교 후 이영훈 목사는 박다윗, 박종필, 신승관, 야마나카 타이스케, 전부호, 최미정, 한경연 총 7명의 입학생을 호명하고 입학허가 선언을 했다.

이어 윤소영 홋카이도선교회장은 3년 반에 걸쳐 이뤄진 개교과정을 소개했다. 명예고문 최용우 목사는 "이 학교를 통해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 에스라와 같은 신학자, 베드로와 같은 설교자,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배출돼 일본 일천만구령 사역이 앞당겨질 것을 확신한다"고 축사했다.

삿포로신학교는 일본 국내외 선교를 위한 사역자 양성을 위해 세워진 학교로서 2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과 일본어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복순희 기자

3000 기도용사 특별기도회 개최

100만 성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한 3000 기도용사 특별기도회가 3일 바울성전에서 개최됐다. 예배에 참석한 기도용사들은 깃발을 흔들며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했다.

기도회에서 이영훈 담임목사는 '기도와 감사'(살전 5:16~18)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다. 다른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3000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만 성도를 주실 것을 바라봤다.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한다. 많은 영혼을 구해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5면에 계속

김주영 기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이영훈 담임목사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1~3절

한 번뿐인 인생을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요셉은 거룩한 꿈을 꾸었으며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의 일생에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 꿈꾸는 사람 요셉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장차 위대한 인물이 될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꿈이 없이 살던 형들은 꿈꾸는 동생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창 37:5~8).

요셉의 형들은 늘 꿈에 사로잡혀서 꿈 얘기를 하는 요셉을 시기했고 죽이고 싶은 마음마저 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을 만나러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창 37:19~20).

우리가 거룩한 꿈을 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꾸는 사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꿈이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80세가 넘도록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 15:5).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게 되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었던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2. 고난을 극복한 요셉

그런데 꿈이 이뤄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따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해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의 꿈으로 인하여 형들에게 죽을 뻔하였고 결국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한 꿈을 꾸는 요셉과 함께하셨고 그가 섬기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창 39:2~3).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시는 것을 본 보디발은 모든 집안일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노예 생활 가운데도 꿈을 잃지 않았던 요셉과 함께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고난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도 요셉의 꿈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은 간수장에게 성실함을 인정받아 감옥의 제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용서와 관용의 삶으로
형통의 복을 누려야

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창 39:21~23).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하셔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꿈을 붙잡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 고난을 극복하고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용서와 관용의 사람 요셉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된다고 알려준 것입니다. 요셉은 복직될 예정인 술 관원장에게 자신은 죄없이 감옥에 갇혔으니 왕에게 고하여 자신을 건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고 요셉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줄 기회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창 41:39~40).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열일곱 살 때 꾸었던 꿈이 서른 살에 이루어져 그가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지만 자신을 고통 받게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꿈꾸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복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관용을 베풀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잘못을 들추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며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요셉과 같이 꿈을 꾸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주실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거룩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 도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통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전문은 순복음가족신문 홈페이지 「www.fgnews.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4월 11일(월) -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 말씀 : 요일 4:9~11 ◎ 찬송 : 새 304장(통 404장)

때로는 작은 일이라도 먼저 손 내밀어주는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큰 감사와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셨습니다(롬 5:8). 사람들은 경계심, 거절에 대한 두려움, 자존심, 수줍음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쉽사리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고난주간을 지내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그를 통해 나타난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2일(화) -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 말씀 : 딤후 2:8 ◎ 찬송 : 새 283장(통 183장)

처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눈물 흘리고 찬양했던 순간보다 더 아름다운 경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점차 이 구원의 감격이 조금씩 잊혀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난주간을 보내봅시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제 안에서 넘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3일(수) - 생명을 주신 예수님

◎ 말씀 : 요일 5:12 ◎ 찬송 : 새 154장(통 139장)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억해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키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은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죽었던 영이 되살아났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어떤 수치와 고통도 개의치 않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에 참여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 생명 주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신도를 위한 사도행전 이야기(66)

제2차 선교여행 – 데살로니가 선교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은 유럽의 관문인 헬라(그리스)에 집중되었다. 첫 사역지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 맞고 차꼬에 채여 깊은 감옥에 갇혔다가 추방된 바울 일행은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데살로니가는 헬라 북부 지역인 마게도냐 주의 주도(州都)로서 항구 도시이자 로마에서 동방으로 가는 군사도로인 '비아 에그나시아'가 관통하는 교통과 문화, 상업의 중심지였다.

낯선 지역에 가면 우선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전략에 따라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 성경 강론을 펼쳤다. 아직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때라 여기에서의 '성경'은 구약성경을 가리킨다. 바울은 구약 예언들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설명했다(행 17:3).

이에 회당에 모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감화를 받아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건한 헬라인'이란 백부장 고넬료처럼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았고 바울의 성경 강해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마게도냐 지역에 유력한 귀부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당시 역사 기록이 증언하고 있다(예: 빌립보의 루디아). 바울과 실라는 이런 식으로 세 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써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했다.

데살로니가 선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바울이 직접 쓴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다. 바울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도 했다(살전 1:5). 다시 말해 강력한 말씀 운동과 함께 성령 사역을 전개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살전 2:9). 그에 따라 수많은 데살로니가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변화와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살전 1:9). 놀라운 점은 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바울과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살전 1:6).

데살로니가에 큰 부흥이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시중의 불량한 자들을 선동하여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급기야 선교팀이 머물고 있던 집을 급습하여 그들을 끌어내려 했지만 실패하자 대신 야손과 몇몇 형제들을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 선교팀을 가리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면서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한다고 함으로써 로마제국의 전복 세력으로 매도했다(행 17:6~7). 이 말을 듣고 무리와 관리들이 소동한 끝에 야손과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 상황이 이처럼 험악해지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냈다.

한 달 남짓 짧은 기간 동안 큰 부흥과 함께 극심한 박해가 일어나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은 베뢰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가서도 온통 데살로니가 성도들 염려뿐이었다. 그리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곳 사정을 확인하고자 했다(살전 3:1~5). 잠시 후 그가 돌아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서서 여전히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큰 기쁨 속에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전서다.

김호성 부목사(목회신학)

칼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는가?

전형철 목사
(강남성전 담임)

"아저씨, 증권회사 다니시지요?" 7년 전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여의도의 어느 햄버거 가게 청년 점원이 마치 뭔가 안다는 듯 씩 웃으며 건넨 말이다. 전혀 모르는 타인이 연상한 나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여 더듬듯 대답했다. "어… 나는 목사예요." "아~! 목사님이세요. 저도 교회에 다녔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를 통해 나는 청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와 목사의 모습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무엇이 나를 목회자로 보지 못하게 한 것일까?

정장을 입은 나의 모습이 일반인과 다를 바 없고 지역 특성상 증권가 사람들이 많은 곳이며 특히 그 가게의 햄버거 값이 조금 비싸서 목회자는 오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본 것인가? 깊은 고민은 말씀 한 구절에 귀착하게 됐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행 11:26b).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에 이어진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 뒤, 시간이 지나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성경을 배운 안디옥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다. 그 칭호는 존경보다는 경멸의 의미였지만 안디옥에 함께 살아온 자로서 그들의 외모가 아닌 삶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스스로의 질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고민한 것이 아니라 외양에서 나오는 목회자의 구별됨에 치중한 것이다.

"도대체 저자들은 누구야?" "응. 저 사람들 말이야. 최근 들어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네." 제자들이 얼마나 유별났는지 안디옥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님만 따르는 자로 구별하여 '크리스티아노스'(그리스도인들)로 불렀고, 그 칭호는 제자들의 정체성(Identity)을 말해주게 되었다.

정체성이란 라틴어 '에쎈티타스'(essenti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반복과 존재가 결합 된 단어로 '반복되어진 실재'(repeated beingness)라는 뜻이라고 한다.

매일같이 예수만 이야기하며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것이 안디옥 제자들이 처음 듣게 된 '그리스도인'의 뜻이다. 스스로 칭한 것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칭함을 받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 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는가 잠시 생각해 본다.

만남과 변화

뇌출혈로 인한 전신마비, 이영훈 목사 기도 후 회복

불평하던 과거 회개하고 절대감사의 삶 결단
가족들의 사랑과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감사

조정순 집사
(양서성전)

지난해 12월 중순이었다.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생겨서 진통제를 먹고 견디던 중 의식을 잃었다. 마침 함께 집에 있던 손자들이 딸들에게 연락을 해 직장에 있던 큰딸이 와서 응급차를 함께 타고 병원으로 갔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이라 여러 병원을 다녀도 나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딸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한 대학병원에서 오라는 연락을 했다. 병원에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다.

뇌의 중앙 부위와 오른쪽에 출혈이 생겨 뇌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 출혈을 닦아내고 뇌압을 낮추는 수술이 진행됐다. 머리뼈를 한 뼘 정도 길이로 두 군데를 절개했다. 의사는 수술이 잘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의식이 돌아온 후 내 상태에 너무도 놀랐다. 머리는 수술이 되어 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니 믿을 수 없었다.

걱정만 하는데 그때 누군가 내 곁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아왔어요. 앞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회개기도가 터져 나왔다.

그때부터 발에 힘이 들어가 부축을 받고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됐다. 교구장님의 추천으로 1월 25일에 이영훈 담임목사님께서 전화 심방을 해주셨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비가 풀리고 깨끗이 나을 것이라고 믿음의 기도를 선포해주시고 축복해주셨다. 목사님의 기도 후 눈에 띄게 마비 증세가 사라지고 회복됐다. 할렐루야!

그리고 재활치료가 시작됐다. 모든 과정이 눈물 나게 힘들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성경 말씀을 붙들고 큰소리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면서 치료에 임했다.

퇴원 후에도 집에 실내 자전거를 두고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다. 지금은 신체 능력이 예전만큼 거의 회복됐으며 좁아진 시야의 치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내가 쓰러졌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셨다. 양서성전에서 오래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과 딸이 봉사 중인 남선교회 전도실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치료의 과정을 거치며 내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코로나와 투병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는데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았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돼 자유롭게 교회에 드나들며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정리=복순희 기자

오늘의 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4월 14일(목) – 나의 희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 말씀 : 요 12:23~24 ◎ 찬송 : 새 341장(통 367장)

사람들은 타인의 이타적인 희생은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이 희생되는 상황은 달갑지 않아 합니다.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야. 나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하며 희생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질 때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쁨으로 나를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5일(금) – 십자가 고난

◎ 말씀 : 벧전 1:18~22 ◎ 찬송 : 새 149장(통 147장)

고난주간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성(聖)금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주는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에 늘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우리 주님께 두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인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16일(토) – 부활의 영광

◎ 말씀 : 고전 15:20~22 ◎ 찬송 : 새 160장(통 150장)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과 멀어져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죽음은 모든 두려움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더욱 놀랍고 감사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며 죽음 후에는 부활이 예비 되어 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내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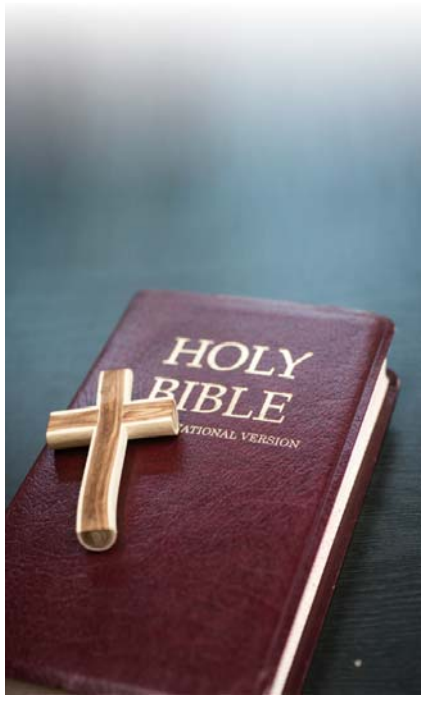
기 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으므로 죽음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믿는 담대한 신앙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속사적 성경 읽기 (16)

구속사적인 삶 - 감사(1)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 역사에 관한 책이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순복음가족신문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의 의미와 인물들의 역할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성도들이 구속사적 성경 묵상을 통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구속사적 성경읽기'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라는 격언이 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행복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불행하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은 삶에 생기가 넘치고 주위를 밝게 만든다. 반면 불만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은 삶에 활력이 없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주위를 물들인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이자 신앙고백이기 때문이다.

1. 에덴동산과 감사

창세기 3장을 보면 사탄이 하와에게 뱀으로 접근해 묻는다. "하나님이 진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여자가 "그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지"라고 답한다. 사탄은 말한다. "에이 무슨 소리야, 먹어 봐라 절대 안 죽는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사탄이 한 말에 담긴 의미는 뭘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하와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 웬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유혹받기 전까지는 만지지도 말아야 할 금단의 열매였는데 말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괴물같이, 귀신같이 나타나서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 몇 마디만 넣어 줄 뿐이다.

사탄이 하와에게 한 말을 한 번 더 들여다보자.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 없이도 세상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능력을 얻는 게 싫어서 못 먹게 한 거야." 사탄은 이 유혹의 말을 통해 하와가 하나님께 불만을 품도록 자극했고 하와는 거기에 꼴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다. 무섭지 않은가? 하나님을 배신한 이유가 불만에서 비롯됐다니 말이다. 불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나님도 배반하게 만든다.

심지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 남편도 '먹게 했다.'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는데 죄를 지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도왔다. 불만의 파급력이 이렇게 큰 것이다. 개인도 망치고, 부부도 망치고, 가족도 망치고, 공동체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친다. 그 불만이 객관적 사실인가? 뱀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탄은 사람이 마음에 불만을 품으면 얼마나 쉽게 넘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더 놀라운 점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만이 들어오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을 배신했다. 만약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가득했다면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갈 수 있었을까? 인류의 비극은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2. 약속의 땅과 감사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정탐꾼 열둘을 보냈다. 40일간 가나안에 출장을 다녀온 열두 정탐꾼이 결과를 보고했는데 10대 2로 의견이 갈렸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니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정적인 보고에만 귀를 기울였고 결국 정신줄을 놓고 말았다.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없던 시절에 부정적인 보고가 그렇게 쉽게 여론을 장악한 것이 기적이다. 성인 남자만 60만명이나 되었는데 그 많은 사람의 마음이 삽시간에 부정적인 보고에 사로잡히다니! 공기 중으로 퍼지는 전염병에라도 걸린 듯 말이다. 그들은 고된 광야길 여정에 쌓인 게 많았던지 울화통이 터진 김에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다. 그들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경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감사의 말을 하는 습관이다. 인도 속담에 "인생의 첫 30년은 사람이 습관을 만들고 마지막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다. 감사의 습관을 만들면 나중에는 감사의 사람이 된다.

감사는 누가 잘할까? 감사해 본 사람이다. 불평은 누가 잘할까? 불평해 본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다 감사의 제목으로 보이고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모든 게 불평거리로밖에 안 보인다. 나를 둘러싼 상황이나 내 처지가 결코 절대적인 게 아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한다. 하나님 같으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잘 알려진 말이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마음, 삶, 가족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면 감사부터 시작하자.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감사할 줄 알았다면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역사를 바꾸는 힘이 감사에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오정섭 목사(국제신학연구원 신학연구소)

Quiz 문제의 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8			
	1 7				9	
2						
					3 10	
6						
4					5	

※ 정답은 이메일(fgnews@naver.com)로만 보내주세요. 보내실 때 성명 주소와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당첨자를 선정해 '은혜로운 주해 성경'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본지 홈페이지(www.fgnews.co.kr)를 통해 주일 오후에 발표됩니다. 우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가로풀이

1. 아히도벨의 계략을 사독과 아비아달이 요나단과 ○○○○○를 통해 다윗에게 전했다(삼하 17장)
2.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 정리된 후 ○○○은 감역관이 되었다(삼하 20장)
3.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루턱을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가 먹을 것을 갖고 찾아왔다(삼하 16장)
4. 다윗의 아들 중 하나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 선포하고 다윗을 반역했다(삼하 15장)
5. 세바의 반역이 정리된 후 야일 사람 ○○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삼하 20장)

▶ 세로풀이

6. ○○은 상수리나무에 매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삼하 18장)
7. ○○○○은 압살롬에게 만 이천 명을 택해 다윗의 뒤를 치겠다고 말하나 압살롬은 후새의 계략을 따랐다(삼하 17장)
8. 압살롬이 이드라의 아들 ○○○를 군지휘관으로 삼았다(삼하 17장)
9. 세바의 반역이 정리된 후 ○○는 서기관이 되었다(삼하 20장)
10.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바후림에 이르니 사울의 친족 ○○○가 다윗을 저주했다(삼하 16장)

선교사중보기도

박성택 선교사(태국)

- 고3인 누이, 엄, 위 학생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와 사용이 불가능한 교회 1층 바닥공사가 속히 진행되도록
- 현장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일일 성경읽기표 - 4월

□	10일 (주일)	신 19:15~21:23	눅 13:22~14:6	시 61:1~8
□	11일 (월)	신 22:1~23:25	눅 14:7~35	시 62:1~12
□	12일 (화)	신 24:1~26:11	눅 15:1~32	시 63:1~11
□	13일 (수)	신 26:12~28:14	눅 16:1~18	시 64:1~10
□	14일 (목)	신 28:15~68	눅 16:19~17:10	시 65:1~5
□	15일 (금)	신 29:1~30:20	눅 17:11~37	시 65:6~13
□	16일 (토)	신 31:1~32:47	눅 18:1~17	시 66:1~7

※ 꼭 읽고 체크하세요!

(사)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2022년 실업인 춘계 축복예배

◎ 일시 : 4월 22일(금) 오후 6시
◎ 설교 : 이영훈 목사
◎ 장소 : 대성전

제38차 기하성 전국장로연합회 정기총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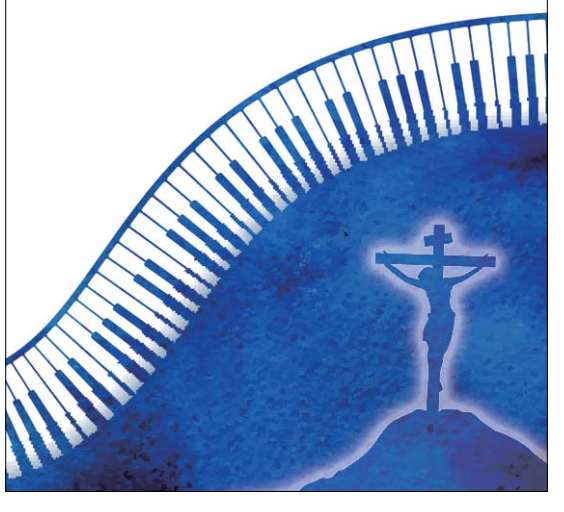
◎ 일시 : 4월 10일(주일) 오후 2시 30분
◎ 강사 : 정동균 목사
◎ 장소 :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루살렘성전
◎ 참석대상 : 기하성(여의도) 전장연 소속 전회원

찬양대교구
베데스다찬양대(수요1부) 대원 모집

◎ 자격 : 본 교회 1년 이상 출석
물 침례 받은 성도
◎ 모집파트 :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 문의 : 02-6181-6704

2022 부활절 음악회

◎ 일시 : 4월 15일(금) 오후 8시
◎ 장소 : 대성전
◎ 일정 :
1부 대성전 파이프오르간 증설기념 연주(신동일 교수)
2부 칸타타 '주 하나님 크시도다' (나사렛찬양대)



남선교회
4월 헌신예배

◎ 일시 : 4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 설교 : 이철신 목사(영락교회 원로)
◎ 장소 : 시온성전

IT선교회
찬양대 반주자 모집

◎ 모집인원 : 1명
◎ 근무요일 : 매 주일
◎ 문의 : 02-6181-6938, 영산복지센터 6층
※근무 시간과 급여는 상담 후 결정됩니다

국민일보 구독료 인상 관련 보내기 구독 안내

◎ 구독료 인상 : 2022년 4월 1일부터 2만원으로 인상
◎ 1년 보내기 구독 가격 :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 20만원(대교구 등 통한 접수)
-일반독자 : 24만원
◎ 시행일자 :(구독기간 기준)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독 신규 및 재연장 : 기존 15만원(1부당)유지
-2023년 1월 1일 이후 구독 신규 및 재연장 : 20만원(1부당)시행
※일반독자는 2022년 4월 1일부터 1년 보내기 가격은 24만원

김선희 교수의
성경 Think! 인생 Thank!

생각하는 성경
감사하는 삶

기독교 교육, 단절 아닌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해
영혼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일 우선돼야

전남 곡성에 사는 할머니들은 글을 알지 못했다. 작은 도서관에서 한글을 배운 할머니들은 시를 쓰고 책을 냈다. 배움 앞에 선 이들은 연필과 공책 대신 핸드폰을 켜고 사진을 찍고 펜을 꺼내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이름을 남긴다. 기기를 다루는 할머니들의 얼굴에는 신기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 전화만 걸 줄 알았던 할머니들의 놀라운 반전이다(S전자 휴대폰 광고 중에서).

계속적으로 학습해야

힘들게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하면 "이 직장에 뼈를 묻어야지!"라고 외치던 다짐은 이제 사라져간다. 연수에 따라 진급하고 정년이 보장됐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첫 직장을 떠났다는 보고가 있을(동아일보 2020년 1월 9일자) 정도로 더 이상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날지 줄어들지에 대한 불안으로 기업도 개인도 재교육에 열심이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지식에도 유통 기한이 있다며 유통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옵솔리지 Obsoledge).

퇴직 후의 삶은 어떠한가? 일자리로부터의 빠른 퇴직으로 5060 세대의 인생 이모작 설계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 기관 등을 통해 배움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사회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상황이다. 누구나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평생학습사회에 살고 있다.

새로운 시대 이미 와

코로나 사태 이후 반강제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했던 기업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새로운 근무 형태를 마련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재택근무제를 공식 제도화했고, LG전자와 SK텔레콤은 직원들이 근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원격근무'를 시행 중이다. 때가 되면 진급하던 시절에서 능력제로 서열에서 밀려날 수 있고 내 연봉과 상여금 등을 스스로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등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새로운 학습 형태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점점 더 개방적인 체재로 변모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무크(온라인 공개 수업), 코세라(온라인 공개 수업 플랫폼) 등 무료로 고급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미 와 있다.

'기독교 교육 이력' 관리 필요

기독교 교육하면 주일학교 교육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 시절 예배 후 공과를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한답시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다 졸업했다. 이후 대학부에 들어가고 취업을 하거나 재수 삼수를 하면 세상에 휩싸여 교회에서 점점 멀어졌다. 직분을 받으려고 수강했던 성경학교, 성경대학이 교회에서 받았던 교육의 전부다. 기독교 교육이 단절되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평생교육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의 배움이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 교회는 다니는데 지식이 부재하니 세상에서 살아낼 힘이 부족하다.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국가에서는 〈평생학습계좌제〉라는 것을 만들어 개인마다 '학습이력통합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교회도 성도들의 '기독교 교육 이력' 관리를 해줘야 한다. 성도들의 신앙 발달 단계에 맞춰 대면과 온라인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선돼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3). 때에 맞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줘야 한다. 이보다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사랑이다. 작은 도서관 관장이 노인들을 사랑하고 필요를 읽고 글을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막 6:34).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노년기의 어르신들을 생각해보자. 몸이 노화돼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다. 걷는 것도 불편하고 하루 종일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다.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줌을 켤 수는 있는지, 와이파이는 터지는지 관심을 가지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골 1:29)고 말한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수고하는 일이 우선되면 그들의 필요가 보인다.

Think! Th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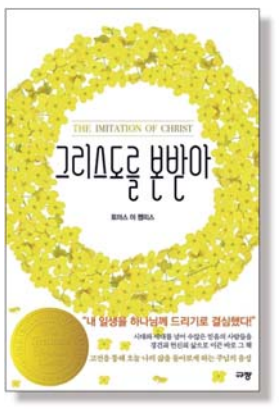
Q1. 교회에서 받은 교육을 나열해 보세요.
Q2. 기독교 교육을 성도들에게 시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엡 4:13)

(교육학 박사)

임훈 목사의
고전(古典)에서 길을 찾다③

토마스 아 켐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아왔던 숨을 내쉬며 안도감으로 읽는 책



토마스 아 켐피스는 성경필사에 진심이었다. 흑사병(pest)으로 온 유럽이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그럴수록 토마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렸다.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tio Christi)가 성경구절을 1000구절 이상 품고 있고, 600년 넘게 고전으로 남아 있는 힘이다. 마르틴 루터, 존 웨슬리, 존 뉴턴, 본 회퍼 등 알만한 인물들이 이 책을 통해 경건훈련을 했다.

평상시 말수가 적었던 토마스는 하나님에 관해 말할 때면 누구보다도 유창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제 골방에서 저와 대화하려고 기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는 행동가이기도 하다.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요, 지금은 노력해야 할 때이며, 지금이 나를 고치기에 적절한 때이다"라고 강조한다. 누군가를 고치기 원한다면 이 책을 탐독해야 하지 않을까.

저자는 우리에게 4가지 주제로 권면한다. 1부 '영적생활에 유익한 권면'에서는 25편의 글들을 통해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두기 할 것을 요구한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안에 거하자고 권면하며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강조한다. 한주간의 생활이 너무 세상쪽에 기울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첫 번째 파트를 촘촘히 읽어보자.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겟(get)할 수 있다.

2부 '내면을 향한 유익한 권면'에서는 "내 안에 주님을 들어오게 하자"면서 특히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내공을 강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빨간펜으로 줄 치면서 읽어야 한다. 키워드는 '겸손'이다. 그리스도를 깊게 알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12편으로 너무 겸손할 만큼 짧다.

반면에 3부 '주님만이 주시는 내적 위로'는 59편으로 제일 길다. 역시 겸손 아래 은혜를 감추라고 한다. 살면서 눈앞에 있는 어떤 것에 휘말리고 있다면 이 파트가 딱이다. 일시적인 것은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구하라고 저자는 강력하게 말한다.

마지막 4부는 '주님과의 거룩한 하나됨'이다. 시간이 부족한 독자라면 성찬의 유익을 알려주는 이 파트는 건너뛰어도 좋다.

재미있는 점은 96편의 권면을 읽다보면 우리가 평상시 교회생활 가운데 하는 말들이 이 책에 깨알같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만일 십자가를 벗어버린다면 틀림없이 또 다른 십자가, 어쩌면 더 무거운 십자가를 만날 것입니다"라는 목사님들이 자주 언급하시는 말씀이다.

심장이 멎는 듯한 날카로운 지적도 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에 감추어진 만나를 찾아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들으면서도 거의 영향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주님께만 집중되고 생각이 정리된다. 생각과잉이라는 불행의 파도 가운데 있는 성도라면 꼭 읽어보자. 롱 코비드(코로나 후유증)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요즘에 마음을 튼튼하게 하는 고전중의 고전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6~8).

(여의도순복음군산교회 담임)

CAM대학선교회, 온레드 헌혈 행사 진행

CAM대학선교회는 2일 헌혈의 집 신촌센터에서 '나눔이 채움되는 행복한 동행 온레드' 헌혈 캠페인 첫 번째 모임을 진행했다. 온레드의 온은 따뜻한 생명 나눔을 의미하는 온(溫/따뜻할 온)과 새롭게 생명이 시작되는 의미의 영어 온(ON)의 중의적 표현이다.

CAM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며 캠퍼스 복음화와 더불어 사회의 취약한 영역의 변화에 동참하고자 이번 헌혈 캠페인을 기획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가적으로 혈액 공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들의 동참이 수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회 곳곳에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다. CAM에서는 올해 7, 10월과 내년 1월 첫 주 토요일에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 나눔에 동참하도록 온레드 캠페인을 홍보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용산성전, 수요 중보기도회

용산성전은 6일 수요말씀강해 후 용산성전 대성전에서 수요 중보기도회를 실시했다. 담임 김용권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개인의 문제 해결과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30분씩 통성으로 기도했다.

김용권 목사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본문으로 "국제정세가 어려운 시기인만큼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우리는 급진적 이슬람세력의 무력화와 동성애 문화가 사라지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용산성전은 5월 22일 열릴 새생명행복축제와 지성전 연합 기도원 성령대망회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도 가졌다.

금지환 기자

3000 기도용사 특별기도회

▶ 1면에 이어

이날 이영훈 목사는 "기도에 속한 응답은 감사함에서 온다. 절대긍정 절대감사의 마음을 가질 것"을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코로나19를 지나며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자리 잡았다.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데 쓰임 받게 됐음에 감사하다.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크다.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라"고 당부했다.

국제신학연구원장 김한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드리머콰이어의 찬양에 이어 설교와 통성기도 순서가 있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영적전쟁에 최전선에 있는 담임목사님을 위해, 또한 우리 교회에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한국과 세계에 놀라운 능력 펼치고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기를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복과 사랑의 두 손을 뻗어 축복송을 불렀다. 한편 기도용사는 현재 2821명으로 179명의 기도용사 자리가 남아있다.

김주영 기자

순복음가족신문 THE FULL GOSPEL FAMILY NEWS PAPER

2022년 우리교회 3대 목표	1.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 2. 십자가 사랑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3. 성령의 역사로 새로워지는 교회

발행인/김호성 편집인·인쇄인/이승한
0723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 전화안내 02-6181-9191 www.fgnews.co.kr
1984년 6월 15일 창간 기사제보 및 광고문의 전화 : 02-6181-6130~4 팩스 : 02-6181-6136

이영훈 목사 "성령 안에 하나 돼 부흥의 역사 이루자"

경기북·인천지역총연합회 제71-2차 정기총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북·인천지역총연합회 제71-2차 정기총회가 4일 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에서 '윈(win) 코로나! 위드(with) 지저스!'(요 16:33)를 주제로 열렸다.

부총회장 김삼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개회예배에서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행 13:1~3)에 대해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안디옥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자 초대형 교회였다. 문화와 무역의 중심도시였던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며 모든 교회의 롤모델이 된 안디옥교회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는 리더의 하나됨을 강조하며 "한국이 세계교회 역사상 가장 짧은 시간에 선교대국이 됐지만 끊임없이 분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모든 리더가 한마음 되어 지역 부흥과 발전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열과 다툼은 마귀의 역사이고, 연합과 복음은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한마음으로 기도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 모든 교회가 하나돼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전국에 코로나로 문닫은 교회가 9700개나 된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 기하성 교단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주님 오실 날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교 후에는 교단 수석부총회장 강영선 목사가 격려사를, 교단 증경총회장 조승렬 목사가 축사했다. 부총회장 진유신 목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역총연합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총회장 신덕수 목사는 "우리는 코로나를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윈 코로나 위드 지저스'가 돼야 한다. 하나되고 성령 충만한 경기북·인천지역총연합회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에 앞서 2일 천국가신 부총회장 이일성 목사(순복음삼마교회 담임)를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글·이미나 / 사진·김용두 기자

영산글로벌미션포럼 예배실 오픈 감사 예배드려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 잘 계승해 나가겠다"

영산 조용기 목사의 '신앙과 신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평신도들이 다시 한번 교회 부흥과 선교에 활발히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창립된 사단법인 영산글로벌미션포럼이 제2교육관 9층에 예배실을 마련하고 8일 오픈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조용기 목사를 존경하고 따랐던 목회자 및 평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예배를 드렸고 조용기 목사가 강조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영산글로벌미션포럼 사무국장 배삼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상임위원 김재동 장로가 대표로 기도했으며, 영목회장 전호윤 목사가 '우물을 다시 판 사람'(창 26:12~18)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전호윤 목사는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대적의 시기와 질투,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았고 아브라함이 팠던 옛 우물을 다시 팠을 때 복을 받았다"면서 "옛 우물을 다시 팠다는 건 위대한 전통을 이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로목사님이 가르치신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리고 4차원의 영성을 이어감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경험을 널리 전하는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배에 참석한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은 축사에 나서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잘 계승해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자들이 돼 달라"고 말했다.

상임이사 김영도 공로장로는 참석자들에게 영산글로벌미션포럼의 설립 취지를 설명하며 "조용기 목사님의 신앙 유산과 신학을 이어가기 위해 앞으로 목사님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행사 및 서적과 설교집 발간, 포럼과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9월에는 일본 도쿄 무도관에서 조용기 목사 일본선교 45주년 기념성회를, 11월에는 과테말라 성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평신도포럼 회장 이종찬B 장로를 비롯한 상임위원 임명장 수여도 있었다.

글·오정선 / 사진·금지환 기자

대교구 소식

◎ 양천대교구

양천대교구는 3월 31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예루살렘성전에서 2022년 전도발대식과 성령대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도발대식은 이성광 총무목사의 사회로 열려 지구장 황정운 장로의 개회선포 후 전도에 대한 영상 시청, 기수단 행진, 선서식, 전도구호 제창, 전도가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교구장 김성호 목사의 소개로 이장균 부목사(교무)가 등단했다. 이장균 목사는 '축복 하였더라'(창 49:28)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이 다른 곳에 있는게 아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 있는 곳이다. 오늘 전도를 위해 모였다. 우리의 믿음은 구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다. 믿음의 분량을 크게 넓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 구로대교구

구로대교구 3450 2기 양육모임 수료식이 3일 구로대교구실에서 개최됐다. 수료식에서 서한식 3450지도장로의 기도에 이어 구로대교구장 성영목 목사가 디모데후서 3장 15~17절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6개월 동안 잘 참여해줘 감사하다. 한 달 후 진행될 제3기 양육모임에도 많이 참여해 선한 일을 행하고 온전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3450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표로 4교구 김미란 집사가 수료증을 받았다. 지구장 김이삭 장로는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된 봉사자로 일하면 주님께 쓰임 받고 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산대교구

용산대교구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7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벧엘성전에서 열렸다. 이날 대교구장 이석병 목사는 '페짜라의 기적'(창 30:37~43)을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 목사는 "페짜라는 히브리어로 껍질을 벗기는 것을 뜻하는데 나뭇가지를 벗기면 하얗게 된 부분을 페짜라라고 부른다"고 설명하며 "우리가 인간의 생각, 지식, 경험이라는 껍질을 모두 벗겨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전도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이석병 목사는 5명을 전도한 2교구 임수아 권사에게 전도상을 수여했다.

◎ 관악대교구

관악대교구는 3일 각 기도처에서 주일 2·3부에 진행된 새생명행복축제에 참석했다. 관악대교구 성도들은 그동안 복음전파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갖고 교구별로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고 전도기도회를 여는 등 새생명행복축제 사전준비를 해왔다.

이날 초청된 169명의 새가족을 위해 관악대교구는 예배 후 간단한 환영회를 열고 화장품세트, 주방용품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대교구장 김형건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관악대교구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한다. 코로나19의 상황을 벗어나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됐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며 축복했다.

◎ 종로중구대교구

종로중구대교구 새생명행복축제가 3일 종로중구대교구 각 기도처에서 주일 2·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됐다. 이날 종로중구대교구에서는 63명의 새신자들이 참석했다. 각 교구에서는 새가족들을 환영하며 정성껏 마련한 선물과 기념품 등을 제공했다. 교역자들은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은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다짐했다.

대교구장 허원호 목사는 "새생명행복축제가 성도들의 전도 열정을 회복시키고 예배에 대한 뜨거운 소망을 갖게 했다"며 "각 교구에서 일주일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이어가며 준비했다. 종로중구대교구는 교회 부흥을 위해 더욱 전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포2대교구

마포2대교구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7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예루살렘성전에서 개최됐다. 심청택 목사의 사회, 김태봉 장로의 기도 후 대교구장 이재하 목사는 '오순절 공동체'(행 2:1~4)를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재하 목사는 오순절 날 120명이 모인 곳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하며 "절박한 기도를 통해 성령이 강하게 임했듯 우리도 물질 사람 권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에게만 항복하는 자가 되어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토피카를 시작으로 아주사로 이어진 미국의 대부흥, 웨일즈에서 비롯된 영국의 대부흥 그리고 평양 대부흥을 언급하며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나의 오순절, 우리의 오순절이 일어나기 위해선 공동체가 모여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역사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 동작대교구

동작대교구 기도원 성령대망회가 3월 26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실로암성전에서 개최됐다. 박종기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7교구협의회의장 이동근 장로의 기도 후 총무 이상일 목사는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감사'(왕하 17:8~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절망의 환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큰 시험으로 다가와도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한다"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커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도전을 허락하심을 잊지말라"고 당부했다.

◎ 은평대교구

은평대교구는 5일 바울성전에서 은평대교구 새생명전도축제를 위한 연합기도회를 진행했다. 이은미 주임전도사의 사회와 기도로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대교구장 문기봉 목사가 '주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눅 6:38)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문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져 받았으니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새생명을 전하는데 힘쓰자"고 강조했다. 설교 후 진행된 통성기도 시간에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이영훈 담임목사를 위해,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했다.

◎ 마포1대교구

마포1대교구는 3일 교회에서 진행된 새생명행복축제에 40여 명의 새가족을 초청했다. 8개 교구 기도처에서 진행된 행복축제는 주일 2·3부 예배로 나눠 열렸다. 이번 행복축제를 위해 마포1대교구 성도들은 그동안 지역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고 수요 전도기도회에 적극 동참하며 태신자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왔다. 대교구에서는 지·구역장이 중심이 된 새신자관리운영팀을 구성해 전도된 새가족이 교회에 잘 출석하고 교구 예배에도 잘 참여해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이다. 마포1대교구는 6월까지 수요 전도기도회를 진행하고 같은 달 말에 대교구 자체 행복축제를 진행해 전도 시상식도 진행할 생각이다.

한편 성도들의 영성 강화를 위해 5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실로암성전에서 성령대망회를 개최했다. 박찬대 목사는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라'(수 14:9~12)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오정선·이미나·복순희·김주영·금지환 기자

직장선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대회

"1500만 직장인 복음화 이루는 거룩한 꿈을 갖자"

사단법인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 직장선교회가 3일 이영훈 담임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직장선교회 창립 41주년 기념예배 및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마포 서울가든호텔 2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린 예배는 직장선교회장 권혁주 장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됐다.

이재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증경회장 김양일 장로의 기도 후 이영훈 목사는 '꿈꾸는 사람'(히 11:1~2)을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본문 말씀은 꿈꾸는 것을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우리 직장선교회원들은 거룩한 꿈을 가져야 한다"며 "사업하는 사람은 잘되는 꿈을, 직장인은 승진의 꿈을 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이다. 각 직장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신우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며 "모든 직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1500만 직장인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룩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힘쓰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 이영훈 목사는 정재식 공로장로와 김설휘 전도사에게 공로패를, 김경대 회원에게 정회원증을 대표로 수여하고 107명의 정회원들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권혁주 장로가 ㈜일신지앤엠 외 9개 업체에 우수 신우회상을, 양승숙 전도사 외 3명에게 회장상을 시상했다.

이날 순복음실업인선교연합회장 정충시 장로는 축사를 통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복음화와 신우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주 장로는 "직장복음화가 민족복음화의 대안이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라 믿는다"며 "올해도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민족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81년 조용기 목사의 명으로 기드온회로 설립된 직장선교회는 1만 직장 신우회 설립을 목표로 직장 및 사업장 복음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직장선교회는 매년 여름 초교파 전국 직장인 및 일반성도 초청 금식대성회, 일일찻집, 미자립교회 지원 사역 등을 전개하며 국내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구제 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금지환 기자

이영훈 목사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될 것' 당부

순복음벧엘교회 강종복 담임목사 취임 및 제직 임직예배

순복음벧엘교회 담임목사 취임 및 제직 임직예배가 7일 벧엘교회 대성전에서 열렸다. 1부는 강종복 담임목사 취임예배로 드려졌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고양지방회 총무 이종호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예배에서 기하성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행 2:42~47)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사도행전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에 순종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 권능을 받아서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다"며 "인근 각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 부흥시키고 선교에 힘쓰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영훈 목사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기도 운동을 벌이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고양지방회장 김용호 목사가 강종복 목사에게 치리권을 부여하고 순복음벧엘교회의 담임목사가 됐음을 공포했다. 이영훈 목사는 강종복 목사에게 취임 축하패를 증정하며 축하했다.

이어 집사안수식을 진행한 후 기하성 부총회장 김봉준 목사가 축사, 고양지방회 증경회장 이형식 목사가 권면사를 전했다. 강종복 목사는 "지축역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새 성전이 지어질 예정이다. 경기북부지역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순복음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순복음벧엘교회 담임 강종복 목사와 정용균 장로는 3일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이영훈 목사에게 교회 성전건축 기금 5억원을 전달했다. 이영훈 목사는 "순복음벧엘교회를 통해 은평 및 지역 일대 복음화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기도했다. 순복음벧엘교회는 1971년 설립돼 올해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며 강종복 목사가 5대 담임으로 취임했다.

이미나·오정선 기자

이영훈 목사, 원인철 합참의장 환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7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원인철 합참의장과 환담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국군 장병들을 위해 이영훈 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들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영훈 목사는 "강력한 안보가 평화를 가져온다"며 "강한 국방력의 최선봉에 서 있는 합참의장님과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태근·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 고석환 목사(기하성 군선교위원장), 김정석 목사(광림교회 담임), 이기식 장로(전 해군작전사령관), 정일식 제독(합참 전투발전부장)이 함께 했다.

김용두 기자

매일경제와 인터뷰 가져

이영훈 담임목사는 5일 성전비서실에서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가 모든 이들과 특별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에 희망의 봄으로 전해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매일경제신문 허연 문화선임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스승인 조용기 목사와의 인연, 우리 교회의 복음 및 나눔 사역 그리고 미래 비전 등을 이야기했다.

부활절을 앞두고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영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기적 사건"이라며 "인류의 희망이 되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꿈과 희망, 삶의 용기를 얻길 기대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또 한국 사회에서의 개신교회 역할을 강조하며 "구한말 한국 개화기에 기독교가 사회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교회 문화 의료 복지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 사랑의 섬김을 보이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훈 목사는 종교지도자로서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지역 이념 계층을 뛰어넘는 국민 대통합"을 우선으로 꼽으며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뷰 기사는 매일경제 15일 자에 게재될 예정이다.

오정선 기자

비전브릿지 오리엔테이션, 메타버스에서 진행

청장년국 비전브릿지 오리엔테이션이 3일 제2교육관 8층 월드비전홀과 각자의 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비전브릿지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gather.town) 내에 우리 교회 맵을 개설해 OT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서 비전브릿지OT 테스크포스(TF)팀을 결성했다.

청년들은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교회를 둘러보고 서로 대화도 나누며 방탈출게임, 보물찾기를 했다. 보물찾기에 참여한 전원에게는 음료 쿠폰이 제공됐고 보물로는 메시지성경과 필름카메라 등이 준비됐다. 모든 행사를 마친 후에는 경품추첨이 있어 스마트워치와 무선이어폰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했다. 청장년국장 강신호 목사와 대학청장년위원회에서 청년들의 예배회복과 교회 출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비전브릿지선교회원 전원에게 햄버거 쿠폰을 전송했다.

이날 행사에서 비전브릿지선교회 담당 권성민 목사는 "지난 1년간 대학입시준비와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이 소홀해졌다면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계기로 신앙의 열정과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전브릿지선교회는 20세 청년들의 신앙회복과 영적성장을 이끌고 청년 신앙인으로서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공동체이다. 청장년국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곳' 비전브릿지에서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시작하고, 더 많은 청년 멘토들이 사역에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주영 기자

전장연, 임역원회의 열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장로연합회(이하 전장연) 제37회기 제2차 임역원회의가 3일 세계선교센터 10층 상황실에서 열렸다. 정하경 총무의 성원 보고에 이어 임창빈 회장의 개회선언, 이건종 부회장의 기도로 이날 임역원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안건은 회장 재선임의 건이었다. 제38회기에는 조병찬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전장연을 이끌게 됐다.

임창빈 회장은 "미자립교회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자유시민(탈북민),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들을 살피는 전장연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전장연이 한 축이 되어 교단이 크게 부흥하길 기도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임역원회의 참석자들은 교단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전장연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전장연은 4월 10일 예루살렘성전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미나 기자

부음

4일 소천받은 이일득 원로장로(여의도직할성전)의 천국환송예배가 6일 이대목동병원장례식장에서 열렸다.

향년 93세. 이일득 원로장로는 2000년 장로로 장립 되어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결혼합니다

♥ 이영신 목사(여의도순복음검단교회)의 아들 이민규와 이광현 님의 딸 이보미
= 4월 16일(토) 정오, 웨딩헤너스(구. 나윤웨딩문화원)2층 그랜드홀, 주례 이영신 목사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일상이 기적입니다

박위 형제(유튜버·온누리교회)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절망 딛고 일어나

세상에 희망 전하는 크리스천 크리에이터

절대긍정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유튜버가 있다. 유튜브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박위 형제이다. 위라클은 박위의 '위'(we)-'우리'와 '미라클'(miracle)-'기적'을 합친 단어로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위라클 채널은 개설 3년 만에 구독자 35만명을 돌파했다.

박위 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된 것은 2014년 당시 28세의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유튜브 채널에서 그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 영상과 사고나 질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휠터뷰' 등의 영상을 통해 큰 감동을 받고 있다.

박위 형제는 공중파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SBS 스페셜'과 '세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등의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됐다. 그는 일반인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도전하며 청년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한 의욕을 심어주고 삶의 목적을 찾도록 도왔다. 또한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휠체어 구입, 자동차 운전 등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의 삶에 한줄기 희망을 전하고 있다.

박위 형제는 건물에서 낙상하는 불의의 사고로 목이 뒤로 꺾이면서 척수신경이 끊어져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8년 전 지금처럼 취업난이 심각했을 시기에 외국계 패션 기업 인턴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됐어요. 취업을 기념해 친구들과 축하 파티를 즐겼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쇄골 뼈 밑으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박위 형제는 처음에는 수술하고 마취가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랬던 그에게 회진을 돌던 주치의는 "당신은 영원히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절망적인 소견을 전했다. 그러나 박위 형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며 "좌절하지 않으며 희망을 가지고 수술 경과를 지켜본 결과 3주 만에 새끼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박위 형제는 피나는 노력을 거듭하며 재활에 힘썼고 팔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회복 돼 혼자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박위 형제가 재활병원에 있을 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 재활을 마치면 항상 병원에 마련된 기도실을 찾았던 그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던 중 마음속으로 '위야,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너는 앞으로 너와 비슷한 아픈 사람들과 세상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한다'는 음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몰랐던 그에게 하나님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박위 형제는 본인의 삶을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해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동시에 일반 사람들의 장애인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세상에 알릴 것을 다짐했다.

"다치고 나서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들을 영상으로 알리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또한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박위 형제는 위라클팩토리라는 소속사를 세우고 직원 2명을 고용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직원 중에는 특별한 영상 편집자인 박진성 형제가 있다. 박위 형제는 "저와 같이 사지마비 진단을 받은 친구인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아 새끼손가락 하나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다"며 웬만한 전문가와 견줄 만큼 수준이 상당하다고 소개했다.

박위 형제는 위라클 채널에서 성도들을 위한 영상 2개를 추천했다. 하나는 오스트리아로 출장을 가서 제작한 실험카메라 영상이다. "오스트리아에서 영상을 촬영하며 장애라는 것이 차별이나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닌 보통의 사람과 약자가 공존하며 서로를 돕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동권 보장에 대한 강의를 갈 때면 항상 이 영상을 보여주곤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씩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성탄절 특집으로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휠터뷰 영상이다. 박위 형제는 "26세에 암을 선고받고 7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여성분인데 인터뷰 내내 너무 밝아 보였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좋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다.

박위 형제는 마지막으로 순복음 성도들에게 우리의 일상이 바로 기적이라는 메시지를 건냈다.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눈 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서는 것들을 연상하실테지만 지금 우리가 숨을 쉬는 것도, 가족끼리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금지환 / 사진·김용두 기자

이영훈 목사의 '땅끝까지 복음을'
방송 안내

이영훈 담임목사님의 '땅끝까지 복음을' 이 다문화tv를 통해서 전국으로 방송됩니다.

◎ **편성시간** : 본방송 매주 주일 오후 7시~8시
재방송 매주 주일 오전 9시~10시
◎ **송출채널** : KT올레tv 158, SK Btv 286,
SK Btv(케이블)219,
LG U플러스tv 254, skylife 190,
LG헬로비전 308, 딜라이브 177,
CMB 87-4, 서경방송 166,
HCN 현대방송(서초) 435,
충북방송 203, 아름방송 33-2

공사입찰공고

1. 공사개요
가. **공사명** : 영산수련원 별관증축 AV시스템 구축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등원로 391번길 40외
다. **공사개요** : 영산수련원 별관 강당(총 4실)AV시스템 구축
라. **시행기관** : 재단법인순복음선교회 영산수련원
마. **공사기간** : 공사계약일로부터 건축공사완료시(2022.9.30.예정)까지
2. 선정방법 : 경쟁입찰 최저가
3. 입찰자격(각 항 모두 해당)
가. **등록업체자격**
① 정보통신 공사 면허 업체 (사업자등록증상 종목 명시)
- 소프트웨어산업 등록증 소지업체의 경우 제출 요망(해당업체에 한함)
② 공사실적 제출
- 최근 2년간 교회 또는 공연장 단일실적 2건 이상 제출 (공사실적증명서 제출)
- 전년도 정보통신공사 실적 5억 이상 업체(정보통신공사협회 실적내역)
③ 공고일 현재 신용등급 'B' 이상
④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업체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
- 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중인 자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업체
나. **본사 또는 지사 소재지가 서울, 경인지역에 소재한 업체**
4. 입찰일정
가. **입찰공고** : 2022. 4. 8.(금) ~ 4. 17(일)
나. **서류접수** : 2022. 4. 18.(월) ~ 4. 22(금) 오후 2시한
다. **낙찰자발표** : 2022. 4. 25.(월)(예정) - 낙찰업체에 한해 개별통보
5. 전자입찰 시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세부사항 : 여의도순복음교회 입찰사이트 참조
http://supp.fgtv.com
6. 낙찰자 결정 : 여의도순복음교회 전자입찰시스템 최저가 낙찰
7. 문의사항 : 전화) 031-934-7777 **메일)** fgcamp@fgcamp.com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 영산수련원 www.fgcamp.com

2022 THE HOLY SPIRIT FESTIVAL 무대 세트 제작 공고

1. 행사명 : 2022년 THE HOLY SPIRIT FESTIVAL 무대 세트 제작
2. 행사장소 :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
3. 제작내역 : 행사 무대(음향, 조명, 영상 등) 설치 제작
4. 납품기한 :
가. 무대세트 제작 : 2022년 6월 4일 ~ 6월 5일
나. 행사 진행 : 2022년 6월 6일
다. 무대 철수 : 2022년 6월 6일 (예정, 추후 협의)
5. 심사방식 : 제한경쟁
6. 무대 제작 제안서 제출 기간 :
2022년 4월 21일(목) ~ 5월 4일(수) 오후 5시
가. 무대 제작 제안서 1부, 무대 시안 1부, 제작 견적서 1부
나. 무대 항목별 장비 목록, 견적 등 구체적인 세부내역 표기
다. 성회본부 이메일(2022ths@naver.com) 접수
7. 심사 결과 발표 : 제안서 심사 후 10일 이내 개별 통지
8. 현장설명회 : 4월 20일(수) 오후 2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제2교육관 8층 월드비전홀)
가.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
(위임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
나. 제출서류 : 행사무대 제작 참가 제출서류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이 해당됨)
다. 무대 제작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서류를 현장설명회 참석 시 제출하여야 함
- 참가신청서 1부 / 서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필) 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원본 제시)
- 참가신청서와 서약서 양식은 http://youthfg.com/information 공지사항 참조
9. 현장설명회 참가 접수 : 4월 19일(화) 오후 5시
(성회본부 전화 또는 이메일)
10. 업체 선정기준
가. ①시스템 구성(무대, 음향, 조명, 영상장비, 특수효과, 악기 등) ②시안 ③경력 ④견적 ⑤업무 협조성
나. 행사 및 진행위원회의 업체별 서류 심사를 거쳐 종합 평가결과 고득점업체 순으로 최종 협상 계약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제출에 따른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 중 성회본부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용역금액에 변동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 심사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별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심사 무효가 되며 차상위 업체를 결정함.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심사결과를 무효로 합니다.
마. 허위사실 및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2. 관련 문의
가. 담당부서 : 더홀리스피릿 성회본부
(Tel : 02-6181-6345 / E-mail:2022ths@naver.com)